



##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성결교회

신임총무 송윤기 목사

7월 17일 총무 이취임식 예배를 통하여 총회본부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한 번의 고배와 유례 없는 경합을 뚫고 승리한 송윤기 목사. 호탕함과 독심으로 무장한 그가 총회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자못 기대된다.

### 포부

“총무로 저를 지명하신 하나님과 총회 대의원들, 성결가족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선이 되니 많은 분들이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때론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도전과 응전 속에 역사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도전과 모험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본부 사역에 있어 팀워크를 이루고 이렇게 응집된 힘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또 역동성과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3성 운동, 즉 성결운동, 성령운동, 성장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대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를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체제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과거 성공한 성결교회의 역사를 토대로 그 바탕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기에 힘차게 달려 나갈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감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근자에는 중소교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성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의식적으로는 아직 미흡하고 저변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저의 정책에 공감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총회본부의 개혁할 부분은?

“총회본부의 존재이유는 개교회입니다. 총회본부를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총회본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목회적 자성을 통해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였습니다만, 총회본부 역시 정치에 개입하거나 행사 뒷바라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교회의 성장에 실제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성훈련과 지도, 육성을 책임지고 이를 연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총회본부의 본질적인 사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백만분과에서 과거 실행했던 알파 프로그램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토양에 맞는 전도, 정착,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 교회설립 및 분립계획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패턴의 교회성장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보니 훌륭한 인재들이 참으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총회본부의 사역을 홍보하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스스로 생각하는 총무의 역할

“4국 1실을 비롯하여 소속기관과 협의기관,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기금을 마련해주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총무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하는 수평적 관계가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의 장점은 누구와도 격의 없이 가까워지는 친화력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팀워크의 핵심에 서겠습니다.”

### 향후 펼쳐나갈 주요 정책 및 사업

“지역총무 시절부터 지난 3년간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면서 정책을 분석하였고 각계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시 약속드린 교단을 위한 10대 정책(정체성 확립, 성결교회의 세계화, 영적 갱신과 부흥 그리고 신앙교육 강화, 대사회운동, 신앙유산 계승 발전, 실용적 제도와 인재활용, 적극적 대외홍보 및 선교 경쟁력 강화, 총회와 지방회의 역할분담, 교단리노베이션, 한국교회에 방향제시)과 총회본부를 위한 5대 약속(섬김의 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재정의 투명성, 화해의 리더십,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성결교회와 성결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성결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함께 교단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성장, 발전시켜 나갑시다. 성결교회가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의 중심축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선교 2세기를 마감할 때는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성결교회가 되도록 함께 달려 나갑시다.” 